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3. 10. 12.(목) 06:00 < 10. 12.(목) 석간 > 배포 2023. 10. 11.(수)

정부와 가스업계가 올겨울 가스수급 안정에 적극 협력 다짐

- 에너지 수급상황 점검 및 가스업계 혁신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강경성 2차관은 10. 12.(목) 국내 가스산업(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LPG), 액화천연가스(LNG) 직도입)주요 업계 대표*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에 따라 국내 에너지 수요와 공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업계의 주요 현안과 혁신 전략을 논의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국내 에너지 수요와 공급 안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 참석자: (도시가스) 예스코 정창시 대표이사 사장, JB 한권희 대표이사 사장
(액화석유가스(LPG)) SK가스 윤병석 대표이사 사장, E1 천정식 대표이사 전무
(액화천연가스(LNG) 직도입) GS EPS 정찬수 대표이사 사장, 포스코인터내셔널 이전혁 에너지부문장

참석자들은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에도 불구하고, 국내 가스 수요와 공급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임을 확인하였다. 가스공사와 민간 액화천연가스(LNG) 사의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운항에 문제가 없고, 다가오는 겨울철 도입예정 물량도 충분히 확보한 상황이다. 정부와 관련 업계는 긴밀히 협력해서 가스 수요와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세계(글로벌) 탄소 중립 기조에 따른 에너지산업 변화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국내 가스산업은 화석연료에서 청정 수소에너지 전환을 잇는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에너지산업 변화에 따라 가스산업 업계가 가지고 있는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국내 가스산업이 경쟁력을 갖춰 혁신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민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강경성 2차관은 간담회에서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 발생하는 등 중동의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에너지 수요와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업계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가스업계와 가스공사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겨울철 기간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요와 공급과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에너지 복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자원산업정책국 가스산업과	책임자	과 장	강경택 (044-203-5230)
		담당자	사무관	정한솔 (044-203-521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